창사 63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m.kjdaily.tv ▶m.kjdaily.com 광고문의 062)650-2070

제8054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음력 9월 21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광주방문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윤석열, 광주 방문 정치적 악용 말라"

전두환 옹호성 발언·개 사과 관련 이용섭 시장, 국회서 긴급기자회견

이용섭 광주시장은 2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주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성 발언과 '개 사과' 논란과 관련, 광주 방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5·18 원흉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개 사과' 사진으로 또 한 번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짓밟은 윤 후보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것인지 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열하고 천박한 역사관을 드러내고도 진정성 있는 사죄 한마디 없이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윤 후보에게 광주를 '정치쇼 무대'로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며 "150만 시민은 윤 후보의 이번 광주 방문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성 없는 광주 방문은 오월 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케 할 뿐"이라며 "윤 후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오월 광주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국민의 평균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박한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라며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 국가 지도자의 역사 인식이 바르게 서야 역사가 전진하고, 국가가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윤 후보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군홧발에 짓밟히고 무자비한 총칼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무고한 광주 시민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평생 피 울음 삼키며 밤잠 이루지 못하는 오월 가족들, 아직도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 진정성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그런 후에 광주를 방문해 오월 영령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광주 시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내달 초 광주를 방문하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고 호남 민심을 추스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전남·전북 지역 대학 전·현직 교수 150명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반민주적 인권 탄압과 독재정권의 대명사였던 전두환을 따라 배우겠다는 망언으로 역사관과 정치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광주로 가 민심을 달래겠다'며 마지막 남은 호남인의 자긍심에 다시 한 번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하려는 작태가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내달 '위드 코로나' 전환…일상 되찾는다

정부, 로드맵 공개… 3단계 6주 간격 개편
"4차 유행 재확산은 불가피, 일상방역 중요"

광주·전남지역이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된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2020년 1월20일)가 발생한 지 651일 만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1일 1단계 ▲12월13일 2단계 ▲내년 1월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중수본은 앞서 접종완료율이 70%, 80%, 85%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가지 기준으로 단계를 기계적으로 전환하기보다 충분한 상황 평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4+2주' 방안을 낙점했다.

당장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음식점·카페 등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 5명·전남 1명 등 총 6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임후성 기자

"학살범 찬양 중단하라" 전두환 잔재물 청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경남 합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두환 찬양 중단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광주를 찾은 시민단체는 합천에서 전씨 아호를 딴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 운동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애리 기자

KT 인터넷 '먹통'…전국 가입자 '분통'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상점 결제·기업 업무 등 큰 불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약 1시간 이상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에 관해 심층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7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56분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방송통신 재난대응 상황실'을 구성해 KT 서비스 복구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관련 전문가들과 시스템 오류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에게 이용자 피해현황을 조사하도록 했고, 사고 원인 조사 후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KT는 이날 오전 발생한 인터넷 장애를 두고 처음에는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으나 2시간여 후에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라고 입장을 정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20분께부터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가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검색부터 증권거래 시스템, 상점의 결제시스템, 기업 업무 시스템 등 KT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불통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는 일반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 등 장애가 확산했다. 고객센터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고객 불편이 더해졌다. /연합뉴스

Today

이슈&인물-임미란광주시의원 5면
광주문인협회 문학마당 15면
2022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시작 16면